

## 單子的 個我論(中)

韓稚振

爲先 歴史的으로 論示하면 멀니는 「소크라테스」부터 主論의 思想이 始作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소氏의 根本思想의 焦點은 무엇보다(너를 먼저 알나) 한 것이었다. 實로 氏는 모든 思想界를 人類化 즉 地上化한 感이 업지 안아 있다. 그로부터 人間哲學이 始作했다 하는것이 다적어도 西洋에서는 그러타 하는 것이다. 그 後幾世紀를 鏗鏘하여 十七世紀에 와서 우리는 單子的 個我思想이 現代式化한 것을 發見할 수 잇나니, 그것은 「제카트[데카르트]」의 努力을 經由하여 된 것이라 한다. 該氏는 「내가 思함으로 내가 存在한다.」 하는 萬有의 中心點을 發見한 것이다. 萬有에 遍滿한 一切를 疑訝할 수 잇스 나니의 存在, 나의 意識은 絶對로 疑心할 수 업다는 것이 그의 大發見이였다. 그는 이 確實無疑한 立地에서 凡事物의 謎를 解結하기로 着手한 것이다. 其後얼마 잇다가 「과임니즈」란 大哲人에게 우리는 亦是 單子我 思想의 深奧한 發達을 차자복수 잇나니, 그의 乳名한 「모나드」說(모나달나지)이 그것 이다. 과氏에 依하면 「모나드」即 單子は 單純한 體(質)라 하엿스며, 이 單純한 體는 合成된것이 아니요 그저 單純한 個體라 하엿다. 萬有는 이러한 單純한 單子로 形成했다 한다. 그런데 每 單子は 量的 質的 不同하다 하며 各各自動的 能動的이라 하엿다. 各 單子は 스스로 獨立하여 自營自生하여 外的 影響을 드모지 맞지 아니한다 하엿다. 該氏는 如此한 單文을 模出하되(門이 업는 單子)라 하엿고, 이러케 門이 업스니 아모런 出入이든지 不可能이다 하며 그러치만 홀로 存在自營하고, 全 宇宙는 其中에 잇다 하엿다. 換言하면 每 單子が 곳 宇宙이며 每 單子が 質로나 量으로나 不同하고 無數하니만치 宇宙도 無數히 만흐며 各各特異하다 하엿다. 그러면 엇더케 如此한 單子들이 습해야 우리의 宇宙를 成하엿슬가. 그 습한다는 事實부터 有門한 單子が 안 일가. 「라」氏는 主張라되 每 「모나드」는 神의 「預定的 一致」로 創造되어 一致된 今日 우리의 宇宙를 成來하엿다 하엿다. 勿論如此한 單子說은 만흔

缺點과 難關이 그 中에 伏在하엿슴을 오늘날 科學的 事實에 빚추어 探知할 수 잇스나, 그러나 라氏의 其 神奇的 個我思想은 欽慕할만하고, 近代科學의 思想을 엇더한 程度까지는 預想한것을 忘却할 수 업다.

單子的 個我思想이 積極的 化하기는 以上에 例學한 「아인스타인」의 相對說로이니 우리는 此 科學的 哲學的 眞理를 通貫한 相對性原理의 梗概만이라도 아라 둘만하다. 本學說의 細細한 點을 아는 數學家는 「아인스타인」 自己 外에 몇派이 되지 못한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說의 細密한 點을 알必要도 업다 한다. 單只 그 原理 만알 아스면 우리 갖은 平民에게 滿足하라라 한다. 그러면 그 原理란것은 무엇인가. 나는 主張하기를 아氏의 相對說은 무엇보다 科學上에 立한 絶對個人主義라 한다. 本說의 根本的 意는 宇宙萬象 觀察上其보는 立地가 異하는 만치 其 觀察이 다르다고 主張하는것이니, 假令 우리 사람이 月世界에 立하여 우리 地球를 볼 때에는 月은 不動하고 地球가 動함이되고, 地球에 立場하여 月世界를 觀할 時에는 地球는 定着한것 갖고, 月을 運動하는 것 가치 보이나니, 이것을 一言하고 말면 各個立地에 依하여 自然現象을 各 殊히 卽 相對的으로 觀察한다는 眞理를 突破한 것이다. 이러고 보니 世上萬事가 그 보는데 從하여 相異하여 진다는 것은 그리어 그러진 眞理가 아니오. 三尺童子라 能히 알 만한 것이 아니냐. 相對性原理의 骨子는 이러케도 알고 보면 귀운 것이다. 나의 飴는 他的 毒이 된다는 語句도 相對眞理를 明白히 說明함이였다.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할 수 잇고, 내가 맞을 보아야 苦樂의 맛을 알수잇다는 原理를 科學上 實驗으로 說明해 노흔것이 그 有名한 相對性說이였다. 「아인스타인」은 一步를 進하여 如此한 觀察者의 立場은 絶對的이라 하엿스니, 그 絶對의 意인즉 全 周圍環境은 動하고 變하나 내가 立한 見地는 不動하고 確定이라 하엿다. 卽 나의 立地가 다른사람이 보면 確定하지 아니하엿스나, 내가 그것을 봄에는 固定的이란 것이다. 이것은 實로 劃世紀한만한 個人主義의 石臺인것이다.

單子的 個我主義는 맛츄내 사람도 一個單子로 看做하는 것이다. 사람은 物質的 單子論者들이 說明한드시 無數한 物質的 原子로써 成合한것이 아니라 사람은 不可分的인 一單子라하는 單純한 精神體이니 곳 사람은 物質的 原子의 團結作用이 아니라, 根本부터 單純一致된 一個精神體인 것이다. 이 精神的 單子は 「라임리츠」氏의 主張과 如히 特異한 獨立的 自動者로 되어잇슬 썩이 아니라, 外界의 影響을로히 受치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非常的 個我主義는 그 主張이 참인지 모다 空想인지 하는 것은 그 單子生命과 그 外的 影響(環境)과의 問題될 關係만 解決하는데 從하여 決定될 것이다. 이 問題만 解決하면 單子我主義가 成功하는 要點이다. 우리는 以下이 問題를 公平히 實

經驗上에만 좀 討究하여 보려한다.

本文의 初頭에서 示함과 가치 우리의 思考作用은 恒常歸一을 爲主한다. 즉 明白히 말하면 사람은 自己의 一般經驗을 一致케하는 動作을 名稱함이다. 그런데 經驗이란것은 個體的이다. 單子的이다. 群衆的은 아니다. 所謂 群衆의 心理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그 참된 眞理를 알고 보면 個我的 心理맞게 아니 된다. 나의 經驗은 나의 經驗이요. 나의 兄이나 親友의 것이 될 수 없다. 나의 苦나 樂은 分明히 내에게 屬한 物件이다. 내에게 屬한것은 내의것인 것이다. 내가 只今이 글을 쓰고 일하고 밥먹고 學校에 通學하로라 하고, 또 잘못하면 꾸중당하고,甚하면 逐出까지 當하는 이 모든 活動은 내가하고 내가覺悟하는것이오. 朝鮮內地에 잇는 나의가 하는일은 아니다. 모다 내가 하는것이면 내가 하고 알 것 썬이다. 이것은 實로 不可犯的 眞理요. 누구가 能히非難할손나. 「라임리즈」式의 個我主義는 여기서 出發이 되였다. 그러나 우리가 日常目睹함과 가치 個人이 互相談話도 하고 愛하기도하고 險惡하기도하는 모든 去來를 하는 것이 事實인즉 萬一 外的 影響을 別로 맞지 않는 個我라 하면 엇더케 그러케 去來를 하며, 耳目口鼻는 무슨 使用이나 反駁할 것이다. 又是 내가 말하면 當身이 알고, 當身이 말하면 내가 理解할수잇슨 즉 이것이 밧서 外界의 影響을 밧는 單子我가 아니겠느냐 할 것이다. 勿論이 모든 것이 事實이라고 認定한다. 우리사람은 只今에 잇서 去來로 살아가는 것도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分明히 알아두어야 할 眞理가 잇다. 그眞理란 무엇인가.